

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 구축: 미국의 START 센터의 모범사례의 소개

김은영* · 박선영**

〈요 약〉

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일반범죄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비해서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업무자들과 범죄학자들에게도 어려운 도전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단위의 테러리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의 메릴랜드대학 내의 START 센터에서 구축하여온 GTD 데이터베이스의 시작과 발달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GTD는 START 센터가 핑커단의 세계정보서비스데이터(PGIS)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공개출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식으로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는 세계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GTD 데이터의 발전과정과 이 GTD 데이터의 수집된 내용(변수 및 데이터의 수집규모 등),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소개 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서 GTD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 및 나라별 테러현황 및 분포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적 및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GTD의 소개를 통해서 국내의 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및 구체적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에서의 세계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연구의 공헌점, 정책적 함의 그리고 제한점 등이 논의에 거론되었다.

주제어 : START 센터, GTD, 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 테러리즘

*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범죄수사학과 조교수, 제1저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원, 교신저자

목 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테러리즘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어려움 III. 미국의 START센터의 GTD 구축사례 IV. START 센터의 GTD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의
현황 및 기술적 분석결과 V. 결론 및 논의 |
|---|

I. 서 론

21세기에 들어서 범죄학과 국제관계분야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는 단연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예방 및 대응정책 및 활동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미국의 911사태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테러에 직접적인 희생을 겪지 않은 대다수의 국가들에서도 테러의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테러의 양상이 준전쟁의 형태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목격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윤민우·김은영, 2012a; 2012b). 이에 따라 대테러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경우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사업이 2003년부터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주도아래 시작되어 현재는 거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상태로 테러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테러관련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으나(박준석, 2008; 정육상, 2010; 김두현·안광호, 2010), 테러리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은 국내의 윤민우 교수의 선구자적 주장과 함께 최근에 와서야 점차적으로 공감대를 확산시켜가고 있는 추세이다(이완희·윤민우·박준석, 2013; 윤민우·김은영, 2012a; 2012b). 그러나 일반적인 범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비해서 테러리즘에 관한

국내뿐만 아닌 국제단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은 특히 도전이 되는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제테러데이터베이스구축의 전 과정을 주도해온 미국 메릴랜드대학(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의 the 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 and Responses to Terrorism(START) Center (이하 START) 센터의 세계테러사건데이터베이스구축(Global Terrorism Database: GTD) 과정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정부부분과 다양한 학문영역간의 성공적인 학문융합적결과를 가져온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공적 사례의 경험을 통해서 국내의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시작과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II.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어려움

일반적인 유형의 범주에 들어가는 범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과는 달리 테러사건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은 연구자들이나 실무자들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의 범죄데이터베이스의 수집은 경찰과 법원 그리고 검찰 등의 여러 공식적인 형사사법기관에 신고 된 사건들과 체포 및 기소된 사건들의 수를 통계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 데이터’와 일반 가구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자기보고식의 피해자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한 피해자데이터의 ‘비공식적 데이터’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죄와 관련된 국내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FBI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Uniform Crime Report로 대표되는 ‘공식적 데이터’와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로 대표되는 ‘비공식적 데이터’의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점의 근원적 이유는 실제로 국내의 일반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수집 및 운영이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해왔던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국내의 범죄데이터 운영은 다양한 차원의 범죄데이터를 제공하며 숨겨진 범죄의 암수까지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성공적이고 대표적인 범죄데이터운영의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테러범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미국 역시 앞서 언급한 일반 범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경우와 비교하여서 2000년대 초기까지 자국

내에서 발생한 테러사건뿐만 아니라 국제테러사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다소 미흡하고 어려운 업무였다. 이에 관한 첫 번째 이유는 국외의 범죄정보를 포함하는 공식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및 조직들 그리고 국가들이 드물었으며 그러한 시도를 하는 조직이나 국가의 데이터정보 역시 그 정보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각 국가들에서 국제 테러범죄를 포함한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관들은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nterpol) 과 유엔의 살인범죄 및 마약 및 조직범죄에 관한 범죄설문조사(United Nations crime survey), 그리고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거의 유일한 기관들이며, 또한 이들 기관들의 정보의 수집이 매우 산발적이고 제한된 숫자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보수집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국제적 테러에 관한 정보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한정되었다(LaFree & Dugan, 2004; 2007).

둘째,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미국의 국무성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정부기관들이 자국의 노력으로 국내 및 국제 테러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왔지만 수집된 테러사건정보들에 대해 명확하게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즉,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테러사건에 관한 각 정부들의 해석과 개념정리 및 구분 등이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해서 일반 사건들과 구분되어 기소되지 않았을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의심으로 인한 국가의 정부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테러사건데이터에 대한 불신 자체가 이들 테러데이터들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LaFree & Dugan, 2007).

셋째,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다양한 형사사법기관들에 의해 처리되는 범죄사건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테러사건의 경우는 일부 국가의 경우(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등)를 제외하고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형사사법적 처리를 위한 법제도 및 기소 등의 행위가 유형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1996년 제정된 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법, 그리고 2001년 Patriot Act 등의 테러범죄와, 이들 테러사건에 연루된 범죄용의자들에 대한 기소 및 형사사법적 처리를 구체화한 법들이 제정되어 일반 법률로 처리할 수 없는 테러사건의 형사사법적 처리를 가능하게 한 법률들이 제정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테러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들은 해당 테러사건이 아닌 테러사건과 연관된 일반 주변부 범죄의 죄목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FBI 등이 테러사건으로 이들을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LaFree & Dugan, 2007).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국가의 형사사법기관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테러사건들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테러사건에 대한 체포, 기소, 그리고 사법처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수집하여 하나의 데이터를 형성해 가는 방법 외에는 테러데이터를 수집하는 손쉬운 방안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역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내재적으로 결정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테러리스트 자신들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인터뷰 등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문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테러리스트들에게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다. 따라서 9/11사태에 참가했던 테러리스트들의 심리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던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예, Horgan, 2005; McCauley, 2003)하고는 직접적인 테러리스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보고가 생산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공개된 출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테러와 관련된 연구주제를 다루는 세계의 학자들과 여러 국가의 연구기관들은 긴 시간동안 공개된 출처를 통해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테러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힘을 써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 중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의 의뢰에 의해서 미국의 다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하나의 커다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 세계의 테러사건을 통합적으로 포함하는 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노력인 the 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 and Responses to Terrorism Center(이하 START)의 Global Terrorism Database(GTD)구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LaFree & Dugan, 2007). 이 GTD는 197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해온 약 70,000건 이상의 국제테러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대한 국제테러사건데이터베이스이다. 다음은 START센터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GTD의 구축과정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LaFree와 Dugan(2007)의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Ⅲ. 미국의 START센터의 GTD 구축사례

1. GTD의 시작: PGIS, ITERATE, 그리고 RAND의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

미국의 START 센터는 911이후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의 의뢰로 메릴랜드주립대의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과의 LaFree 교수의 주도로 메릴랜드주립대학 내에 설치된 센터로서 2004년 이후 전 미국의 다수의 대학의 형사사법학, 인류학, 국제관계학, 환경학, 정치학 등의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가장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센터는 그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정책개발 및 학문적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START 센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한 사업은 바로 세계테러사건데이터베이스구축(Global Terrorism Database: GTD)이다.

GTD의 구축을 위해서는 핑커단(Pinkerton)의 세계테러사건정보 데이터베이스(the Pinkerton Gobal Intelligence Services: 이하 PGIS)가 가장 처음의 기초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이 되었다. 핑커단(Pinkerton)은 국제사설경호경비업체이자 테러 및 국제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설기관으로서 전 세계의 현장에서 주요 요인 및 사업자들을 위한 경호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함과 동시에, 이 기관의 활동현장 및 공개정보 출처를 이용하여 테러 및 국제사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스스로의 기관의 활동에 주요 정보로서 사용하여왔다.

이 핑커단(Pinkerton)의 테러데이터베이스는 이와 유사한 다음의 다른 일곱 가지의 공개출처를 사용한 테러데이터베이스들 중에 당대에 현존하는 가장 많은 수의 테러 및 국제범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총 67,179건). 즉, 이터레이트(ITERATRE)(총 10,837건), 트위드(TWEED)(10,498건), 미국 국무성(U.S. Department of State)(총 10,026건), 랜트(RAND)(8,509건), 트리톤(TRITON)(총 2,453건), 랜트.엠.아이피티(RAND-MIPT)(총 17,423건), 그리고 코브라(COBRA)(총 1,041건)가 그 외의 국제테러사건 및 국제범죄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들이다(LaFree & Dugan, 2007, p.184).

우선, 핑커단(Pinkerton)의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데이터 수집을 위한 충분한 훈련

을 받은 전문 연구자들이 다음과 같은 정보의 출처를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였다. 첫째, 공개정보의 출처들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로이터(Reuters), 미국의 국외방송정보서비스(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이하 FBIS)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전 세계의 주요 신문들(예, New York Times, the British Financial Times,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the Washington Post, the Washington Times, 그리고 the Wall Street Journal 등)이 이용되었다. 둘째, 미국 국무성보고서(U.S. State Department reports), 외국정부의 보고서 등의 국가기관에서 발행되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핑커단(Pinkerton)의 사무실과 직원들, 핑커단(Pinkerton)에 경호업무를 의뢰하는 의뢰인들, 그리고 사적 및 공적 정보활동을 하는 개인들 및 조직적으로 반 정부활동을 하는 여러 국가들의 집단들 등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들 정보서비스의 채널들을 통하여 1970년부터 1997년까지의 테러사건들을 파악해내고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핑커단(Pinkerton)의 정보수집활동이 처음부터 다양한 출처와 채널을 사용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1970년 초기의 정보활동 시에는 정부에 의해서 발행되는 보고서들과 FBIS의 정보를 통해서 테러사건에 대한 정보수집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미국에서 수집할 수 있는 앞선 데이터 출처 이외의 미국외의 다양한 정보출처들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활동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START 센터에 데이터베이스를 건네주기 전까지 약 30여년에 걸친 데이터 수집활동은 세 번의 확인 작업을 거치며 데이터기록을 수행하기 위한 약 20여명의 데이터 코딩인력을 지휘하는 단 2명의 데이터수집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은 핑커단(Pinkerton)의 데이터 수집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형식으로 데이터 수집을 지휘해왔다.

이들 핑커단(Pinkerton)의 PGIS의 데이터 수집을 지휘하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넓은 의미의 테러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즉 이들이 수집하는 테러는 “불법적 위력과 폭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으로 위협하려는 수단을 사용하여 공포, 강압, 또는 협박을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로 정의되었다(LaFree & Dugan, 2007; p.184). 동시에 정치적 또는 이념적 동기가 없는 범죄행위들과 무장한 반대세력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개적 무력충돌, 그리고 합법적인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력행위를 테러사건수집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서 허가되지 않은 무력행위들에 대해서

는 정부가 넓은 의미에서 묵과하고 있었다고 여겨지더라도 테러의 행위로 보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테러의 개념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은 이 회사의 목적이 경호를 신청하는 고객들의 안전과 위험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기에 핑커단(Pinkerton)의 데이터는 테러사건이 아닌 데이터를 포함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여 고객의 이익과 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 가능한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앞서 설명한 핑커단(Pinkerton)의 PGIS의 두 가지 특성, 즉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고객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위해 미국외의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테러사건들에 대한 폭넓은 데이터수집활동과 또한 넓은 의미의 테러사건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여 테러데이터베이스의 선별기준으로 사용한 두 가지의 특성이 이 PGIS데이터가 미국 내의 또는 다른 어느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보다 가장 많은 수의 테러사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메릴랜드대학의 LaFree 교수는 핑커단(Pinkerton)에 접촉하여 PGIS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학문적 및 정책적 사용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를 요청하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핑커단(Pinkerton)회사의 호의로 PGIS데이터를 학문적 그리고 정책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얻어 START 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메릴랜드대학의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과 내의 안전한 연구실로 옮겨지게 되었다.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대학 측은 1993년 데이터가 지난 30여 년간 핑커단(Pinkerton)의 이전의 사무실 이전을 거치는 동안 잃어버리게 되었고 다시 복구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LaFree는 2005년 PGIS 데이터가 메릴랜드대학 내의 센터로 옮겨지고 난 뒤 미국형사사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이하 NIJ)에 PGIS데이터의 컴퓨터자료화 및 잃어버린 1993년의 데이터복구를 위한 연구비지원을 받게 된다.

이후 센터에서는 데이터베이스코드북과 웹기반 데이터입력창 개발을 수행하고 데이터 입력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위한 사전테스트기간을 거쳐 데이터수집절차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에 대한 검증을 거친 이후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약 70명의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데이터 입력 절차에 관한 훈련을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필요한 데이터 입력요원들은 새로운 대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충당하였다. 데이터 입력이 시작됨과 동시에 GTD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데이터 확인

작업(data verification)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이는 원래의 PGIS의 테러사건자료를 컴퓨터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발견하고 PGIS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오류 등을 발견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PGIS 데이터는 공개된 출처의 정보들을 통해서 업데이트되고, 수정되었으며 추가적인 정보들이 추가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에 RAND와 ITERATE의 테러데이터들이 동일 사건들의 기록들이 상화 비교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START 센터의 GTD 데이터는 PGIS데이터베이스를 가장 근본적인 데이터 수집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PGIS에 추가적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데이터입력요원들의 공개정보출처를 통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각각의 테러사건에 대한 비교, 검토, 수정, 그리고 내용의 확장 등을 이루어나갔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GTD의 기반을 형성해나갔다. 그리고 이 후, GTD는 2006년 DHS의 인력요인부서로부터 추가적 연구비지원을 받으면서 핑커단(Pinkerton)의 잃어버린 1993년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의 테러사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며 현재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테러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된 전미테러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START 컨소시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DHS의 새로운 연구비지원을 받게 된 2006년 이후의 GTD의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은 제 2의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때부터의 데이터 구축사업을 GTD2시기로 명명하고 메릴랜드대학의 LaFree 교수가 이 사업의 가장 상위 리더연구자로서 실제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기 위한 팀들을 구성하고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문적,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팀들로 구성된 START 컨소시엄을 이끌어나갔다. 우선 보다 구체적이고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START 센터에서는 테러리즘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GTD2데이터선별위원회(GTD2 Criteria Committee)를 운영하였다.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들은 LaFree와 Dugan 교수를 포함하여 Gary Ackerman, Victor Asal, Martha Crenshaw, Michelle Keeney, McCauley, 그리고 Alex P. Schmid 등 미국 전역에서 테러리즘과 관한 전문가들로 인정받는 교수들로서 인문학, 정치학, 환경학, 그리고 범죄통계학 등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가 수행한 일은 PGIS 데이터를 검토하고 새롭게 GTD2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원래 PGIS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풍부하고 정확하며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120가지 이상의 변수(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테러사건들의 특성들 120가지 이상)를 선별하였고 각기의 테러사건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서술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수집의 과정은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교수들이 팀 리더가 되어 6가지의 언어를 사용하는 대학원생 및 대학생들을 훈련하여 약 25명에서 30명을 한 팀으로 형성하여 공개출처정보들을 담고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을 탐색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만다린어), 그리고 아랍어였다. 또한 이들이 탐색하는 일반 데이터베이스들은 Lexis-Nexis (Professional)와 Opensource.gov (이전의 FBIS) 등과 같은 신문 및 미디어정보들 및 연구논문 및 정부보고서 등을 검색하여 볼 수 있는 정보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정보수집가들이 하루에 검색할 수 있는 테러사건은 약 10,000건으로 이렇게 검색된 사건들은 GTD에서 요구하는 테러사건의 개념과 정의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최소한 2개 이상의 추가적인 논문이나 정보출처들과 대비하여서 테러사건으로 구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식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연구 참여학생들에 의해 발견된 테러사건들의 수집정보들은 다시 팀 리더에게 제출되어 팀 리더에 의해서 검토를 받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도록 되어있다. 발견된 테러사건들에 문제가 있을 경우 GTD 데이터 선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이들의 마지막 결정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도 진행 중인 이 데이터수집과정은 1997년 이후에 종료된 PGIS 데이터를 2007년 6월까지로 확대·수집하였고 이후 2012년까지 확대·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LaFree & Dugan, 2007; pp. 183-189).

2. GTD 데이터베이스의 장점과 약점

앞선 데이터베이스구축 가이드라인은 GTD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완벽하고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자 하는 START 컨소시엄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테러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는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이 GTD의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GTD 데이터베이스는 첫째, 전 세계의 테러사건을 총망라해서 수집한 국제 테러 데이터베이스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테러사건 데이터베이스가 자국내 또는 자국과 관련된 테러사건을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을 해 왔다는 한계점을 극복한 데이터베이스이다.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현존하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보다 그 수와 양에서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원래 P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던 시기부터 상당히 특이하게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담당자가 동일한 인물들이었다는 점이다. 즉, 단 2명의 데이터수집전문가가 27년간 PGIS 데이터수집활동을 수행하여왔던 것이다. 이후 GTD의 데이터베이스구축 역시 선행한 PGIS의 데이터 수집활동의 특성을 물려받고 보전하여 더욱 발전시켰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GTD 데이터 수집활동은 다른 데이터베이스구축활동과 달리 통일성있는 작업이었다고 이로 인해서 이 GTD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또다시 원래의 PGIS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으로서 이 원 데이터가 정부기관이나 국가 연구기관에 의해서 수집된 것이 아니라 사설 경호경비기업에 의해서 수집되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이로 인해 테러사건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릴 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사건을 생략하였을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테러에 대한 개념이 확장적인 것이어서 가능한 많은 테러사건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이 되어있었다는 것이 GTD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네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 외에 GTD의 원 데이터베이스인 PGIS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이러한 단점들 중 가장 주요한 단점은 앞선 장점으로 거론된 넓은 의미의 테러사건에 대한 개념정의이다. 이로 인해 테러집단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테러사건이라고 분류되기 어려운 범죄사건들까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나 멕시코 등지의 남미의 테러집단들은 인질납치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 정치적 또는 이념적 목적의 테러활동이라기 보다는 집단의 테러수행자금 확보를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수행된 활동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들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등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고객들의 안전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PGIS에서는 테러사

건으로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두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GTD선별위원회는 PGIS 데이터베이스의 사건뿐 만아니라 새롭게 수집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테러범 및 조직에 의한 사건이 의도적으로 발생한 사건들만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였고, 그 사건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폭력의 실현 및 폭력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는 사건들이어야 하며 한국의 정부기관이 주권적 행동으로 벌인 사건이나 다른 주권국가에 대한 전투 및 도발 등의 행위를 제외한 사건들만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이전의 PGIS 데이터베이스는 사건을 기록할 때, 단 하나의 정보출처에서만 사건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새로운 GTD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준에서는 각각의 테러사건에 대한 언급이나 정보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정보출처에서 언급되거나 발견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GTD 데이터는 공개정보출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완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공개정보출처가 매스미디어라는 점인데, 매스미디어에서 다루는 테러사건들은 일반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센세이셔널한 이슈들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는 반면, 미디어가 다가가기 어려운 조건의 지역이나 환경 또는 그 지역의 정부나 권위자들에 의해서 감춰진 정보들 및 미디어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역에서의 테러사건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일부 부족은 공개정보출처에서의 정보수집의 한계점이며 이러한 한계점을 GTD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역시 데이터베이스의 형성에서 테러사건에 책임이 있는 집단과 집단의 어떤 테러범이 어떠한 테러의 경력과 동기들을 가지고 테러에 가담했는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정보의 부족은 먼저 비밀스럽고 접촉하기 어려운 테러집단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상 얻어내기 어려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필요한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의 획득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GTD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학문적 연구는 제한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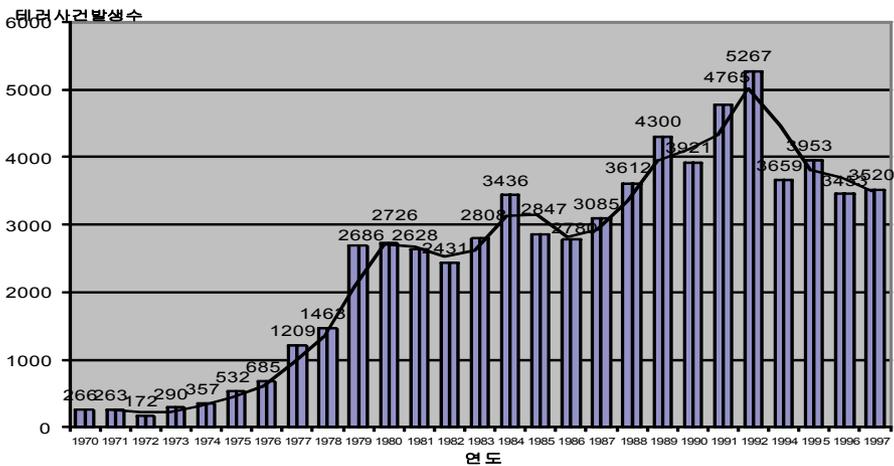
IV. START 센터의 GTD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의 현황 및 기술적 분석결과

앞선 장에서는 GTD 데이터의 시작과 형성 그리고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가 있었다. 이번 장에서부터는 198국에서 1970년에서 1997년까지의 테러사건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GTD데이터의 활용가능성과 GTD데이터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GTD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촉은 START 센터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start.umd.edu/>). 분석기법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의 발생을 몇 단위의 국가들로 묶어 국가집단별 시간적 발생에 따른 궤적을 분석하는 trajectory analysis를 수행하여 사건에 대한 기술적, 시계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국가들 간 장기간의 테러사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고 높은 수의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국가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수행하고 또한 국가 간의 테러사건의 궤적들의 차이점들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나라들을 집단 별로 묶는 기준은 각 나라들의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하여 6개의 국가집단들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1. GTD 데이터를 사용한 누적테러사건의 기술적 분석결과

<그림 1>의 도표는 1970년에서 1997년까지의 GTD 데이터는 총 69,099건의 테러사건의 전체적인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 연도별 테러사건의 빈도분포를 막대도표로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그림1을 살펴보면 전 세계의 테러사건은 1970년부터 점차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5,325사건이 발생한 1992년에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976년까지는 알려진 테러집단에 의한 테러활동이 1,000건 미만으로 발생하는 등 빈번하지 않은 활동양상을 보이다가 1978년에서 1979년 사이에 이전의 발생빈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증가인 5,700건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증가의 추세가 1992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후 1997년까지의 테러사건의 궤적은 테러사건의 발생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지만 그 빈도는 약 3,500건으로 그 숫자는 약 28년 전보다는 3배 이상 증가한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도표는 테러사건발생의 분석을 위해 국가들을 지역별로 구분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장 많은 국가들이 포함된 지역이 유럽지역(26%)이며, 그 뒤를 사하라 사막아래 위치한 아프리카 지역들(24%), 라틴아메리카(20%), 아시아지역(18%), 중동/북아프리카지역 (11%), 그리고 북미지역(1%)의 순서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테러발생시계열분석결과는 <그림 3>의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보다 자세한 지역별 국가분류는 LaFree & Dugan(2007)의 pp. 201-202를 참조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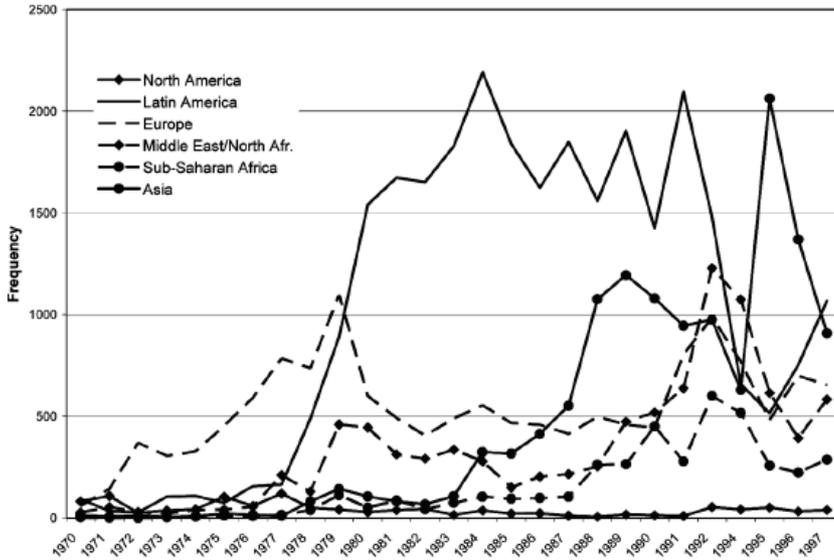
<그림 1> 전 세계 테러사건발생 빈도표, 1970-1997

앞서 언급된 6개의 국가집단으로 나뉜 집단들 별 테러사건발생의 시간별 추세는 아래의 <그림3>을 통해 살펴보면 개별국가집단들 중 전체 테러사건에 영향을 미친 집단들과 그 시기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초기의 1970년에서 1979년까지의 기간 동안 6개 집단 중 가장 높은 테러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유럽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1979년에는 유럽지역에서만 발생한 테러사건의 수가 연 1,000건을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1970년대에는 전 세계의 테러가 주로 유럽의 문제인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 동서독 시절의 이념 간 경쟁 및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테러단체들의 반정부활동 등의 적극적인 테러활동이 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유럽지역으

로 분류가 되고 있는 알바니아지역에서 조직범죄 및 테러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므로 이 영향으로 1970년대에는 유럽이 테러사건으로 주로 고통 받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큰 상승 또는 하락의 급변하는 추세 없이 평균적으로 500-600건 정도의 연간 테러사건발생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테러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라틴아메리카였다. 라틴아메리카지역의 테러사건은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다 1984년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몇 번의 급작스런 추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다시 1992년에 또 다른 최고조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높은 빈도의 발생은 1995년 이후 급락추세를 보이며 하락하고 그 이후에 1997년까지 연간 1,000여건 이상의 급격한 상승세를 다시 보이고 있어 앞선 유럽의 추세와는 또 다른 진행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높은 빈도와 극적인 발생빈도의 급락 또는 급상승의 추세의 반복은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테러집단들의 활동(예를 들면 콜롬비아의 the National Liberation Army (ELN), the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FARC), 그리고 the 19th of April Movement (M-19) 등의 마약류의 거래 및 인신매매 등을 통한 집단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테러집단들의 활동 등)과 이를 통제하고자 하던 국가정부기관 및 이웃의 미국 등의 대테러 및 범죄정책의 협력 등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테러사건의 빈도를 보이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1976년 이전까지는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테러사건의 빈도를 보이다가 1979년 연간 1,000건에 가까운 테러사건의 발생증가를 보였다. 이후 1990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2년 최고조의 발생이후 다시 1996년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발생의 추이는 1970년대 초반에는 중동 지역에서 군사정권 등의 안정적인 정권유지가 테러사건의 발생을 억제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아프가니스탄 지역과 이란 및 이라크, 터키 등지의 지역의 지속적인 민족분쟁 및 미국 등의 외부세력에 대한 대응테러세력의 활동 등으로 나타난 테러발생추세로 보여진다. 현재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1997년 이후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의 9/11사태가 발생한 2001년 이후의 전 세계의 테러사건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 된 중동지역은 이 시기 이후의 테러사건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분석이 된다면 지속적인 테러사건발생의 상승이 이 지역에서 포착될 것이다.



(자료: LaFree & Dugan, 2007의 191의 재구성)

〈그림 3〉 지역집단별 테러사건의 시간별 귀적빈도분석

그 외의 아시아 및 사하라사막 아래의 아프리카지역의 테러사건은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보여주고 있어 비교적 최근에 테러사건이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의 테러사건에 책임이 있는 집단들은 주로 민족 간 분쟁 및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대립하는 집단들에 의한 테러사건으로 보여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및 캐나다 등이 포함된 북미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빈도의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북미지역에 자국의 자생적 테러집단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과 미국의 자국 내 자생적 테러사건 발생 이외에 본토를 목표로 해서 발생하는 외부의 테러 집단의 테러사건의 발생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LaFree & Dugan, 2007: p. 190-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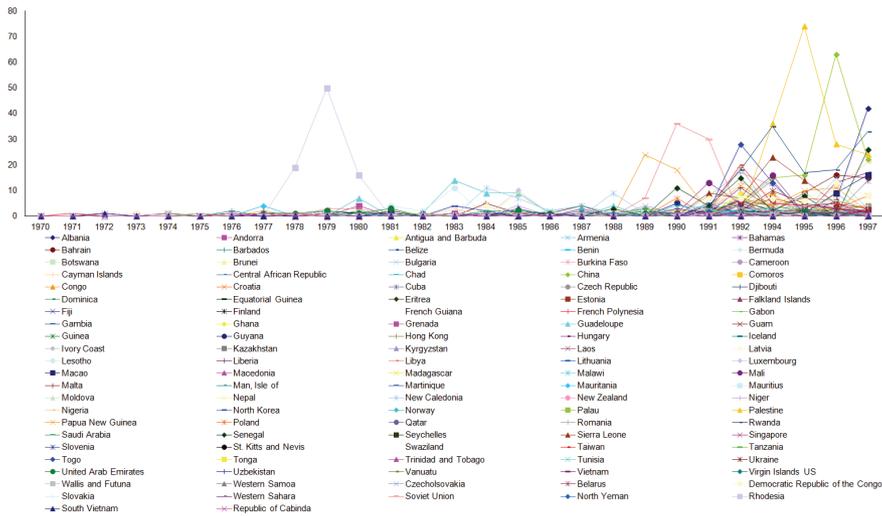
2. 유사한 테러사건 추이를 보이는 집단들의 시계열분석결과

다음의 시계열분석결과들은 GTD 데이터에 포함된 198개 국가들 중 28년간의 테러사건의 발생추이가 서로 비슷한 형태를 취하는 국가들로 6가지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테러사건발생의 추이의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보다 자세한 국가의 집단별 분류는 appendix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테러사건들의 추이를 보여주는 분석결과는 많은 수 시계열분석선이 같이 나타나서 지나치게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분석의 목적이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국가들을 구분하여 그 추이의 특성들을 구분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분석의 결과로 제시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 이에 따라 우선 각 6집단들에 포함된 국가들의 테러사건을 각각 집단별로 6개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각각의 6집단들에 속해있는 국가들에서 나타난 테러사건을 평균화하여서 각 6개 집단들의 종합적인 테러사건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6개집단의 평균적 테러사건의 시간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하나의 분석결과에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계열 분석은 테러사건이 보고된 원자료를 다 포함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테러사건을 보고하고 있는 숫자들을 다 보고하지 않고 매해 발생한 테러사건이 80회 이상보다 높게 보고된 경우 그 위의 숫자를 보고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의 테러사건의 횟수를 80으로 제한하여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은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시계열분석에서 테러사건의 원발생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지 않고 국가들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분석하여 예측된 테러사건의 추이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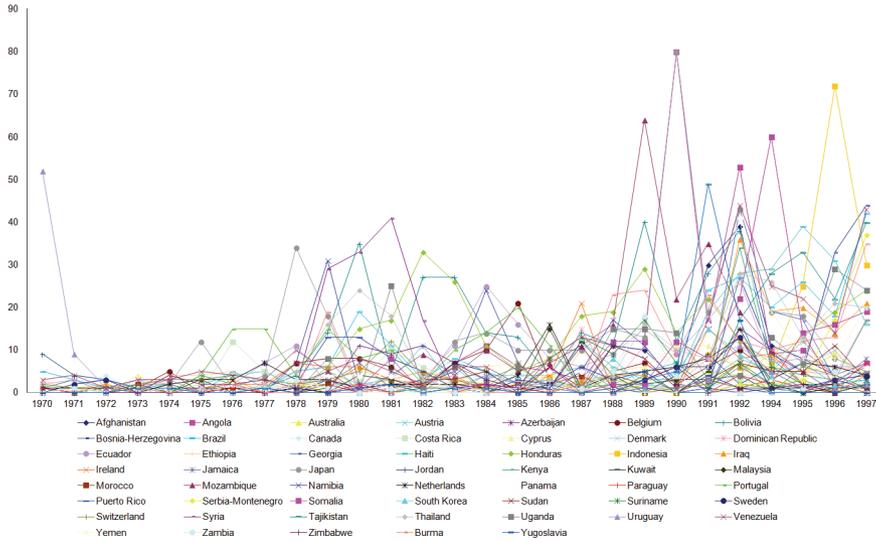
우선 첫 번째 시간적 궤적분석에 포함된 국가들은 112개 국가들이 포함되어있는 집단 1의 분석결과가 <그림 4>에 제시되어있다. 이 집단 1의 분석결과는 GTD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있는 198개 국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포함 되어있지만 전체 GTD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테러사건들 중 단 6%의 테러사건만이 발생된 국가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국가들의 테러사건의 추이는 시간적 궤적이 나타나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아주 적은 수의 테러사건을 보고하고 있다. 1979년 가장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는 Rhodesia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테러사건의 발생이 아주 드물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집단 1에 포함된 나라들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도바, 그리고

에스토니아 등의 대부분 이전 소련연방에 포함되어있던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초에 증가를 보이는 지역 국가들 중에는 팔레스타인 등이 이 집단 1에 포함되어있다.

두 번째로 집단 2의 시계열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모두 54개국으로 그 결과가 <그림 5>에 나타나있다. 집단 2의 시계열분석결과를 집단 1의 분석결과와 비교해보면 국가들의 테러사건의 추이가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수의 국가들의 추세선에서 여러 번의 높은 꼭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테러사건들의 발생의 추세는 그 발생 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집단 2에 포함된 국가들은 일본,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호주, 그리고 오스트리아 등이며 전체 GTD 테러사건의 약 18%의 발생을 보고하였다.



〈그림 4〉 테러사건이 발생한 국가들의 시간적 궤적 분석결과: 집단 1



<그림 5> 테러사건이 발생한 국가들의 시간적 궤적 분석결과: 집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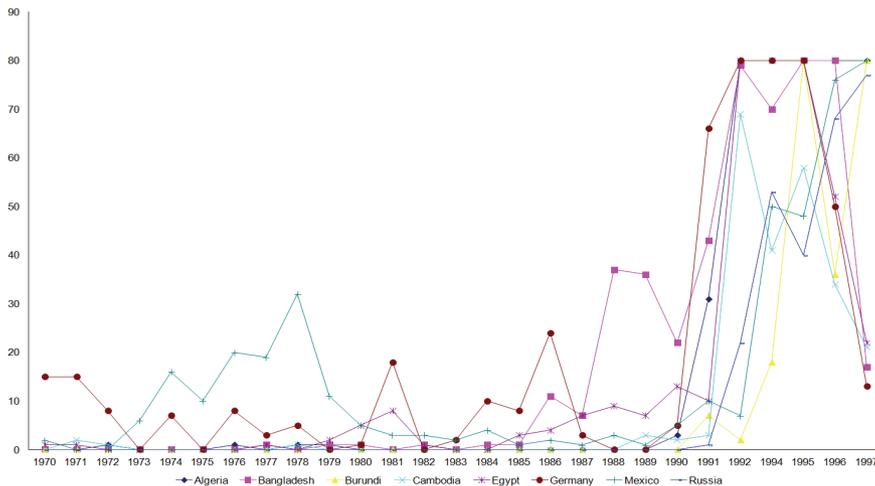
아래 <그림 6>에 나타난 테러사건 시계열분석결과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패턴의 추세선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집단 3에는 단 8개의 국가들만이 포함되었는데 알제리, 방글라데시, 멕시코, 캄보디아, 이집트, 그리고 러시아가 그 국가들이다. 집단 3의 테러사건의 발생 수는 GTD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테러사건발생의 약 8%에 그치고 있다.

집단 4의 테러사건 시계열분석결과는 <그림 7>에 나타나있다. 이 분석에 포함된 집단 4는 앞선 집단 3보다 더 적은 수의 6 국가들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높은 빈도의 테러사건들이 추세선에 반영이 되어있어 다수의 추세의 높은 꼭지점들이 이 분석의 연간 최고 테러사건 건수인 8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 같은 이유는 집단 4에 포함된 국가들은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그리고 터키로서 일반적으로 부족 간 또는 인종간의 갈등과 분쟁이 오랫동안 발생했던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집단 4에 포함된 국가들에서 발생한 테러사건들이 GTD 데이터베이스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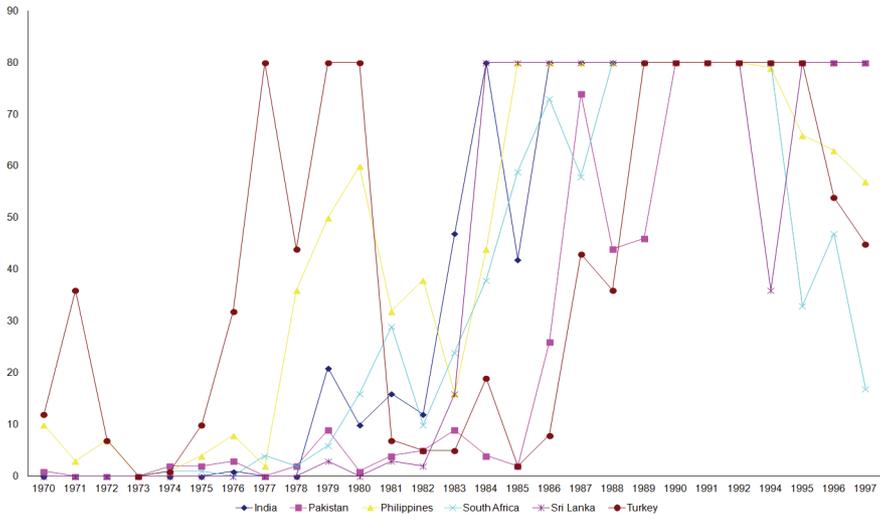
<그림 8>과 <그림 9>의 분석결과는 집단 5와 6의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집

단 5와 6의 분석결과는 GTD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시계열추세선들 중 가장 흥미로운 추세선들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집단 5에 포함된 국가들은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란의 6개 국가들로서 이념, 종교 및 인종간의 갈등 등이 전통적으로 발생하여온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 5의 테러사건은 GTD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테러사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 발생한 테러사건들은 1970년대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주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는 상당한 수준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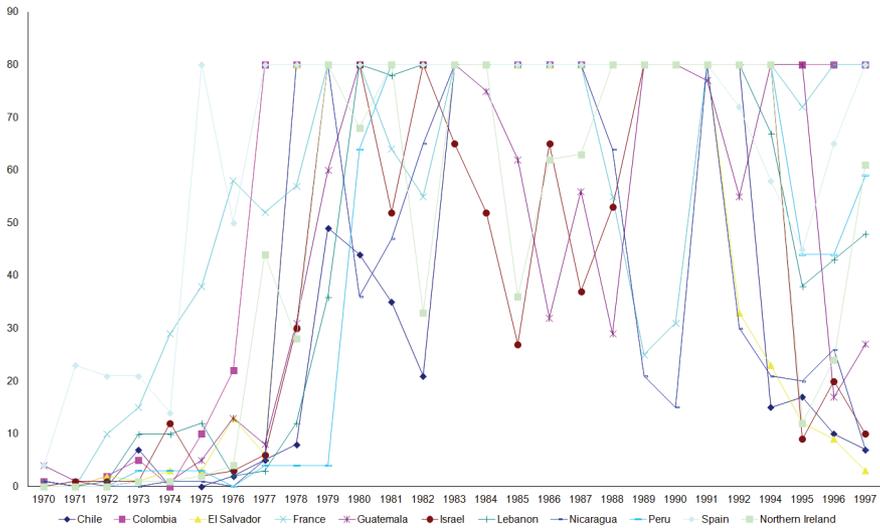
집단 6의 11개국의 테러사건이 발생한 분석결과는 집단 6에 포함된 대다수의 나라들이 매우 높은 빈도의 테러사건들이 테러사건이 보고되는 약 28년간의 거의 모든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몇몇의 국가들에서는 테러사건의 감소추세도 감지되지만 이러한 테러추세선들도 다른 집단들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에 비해 높은 수의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더구나 집단 6에 포함된 11개국(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페루, 스페인, 북아일랜드, 과테말라, 프랑스, 니카라과, 그리고 레바논)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은 GTD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테러사건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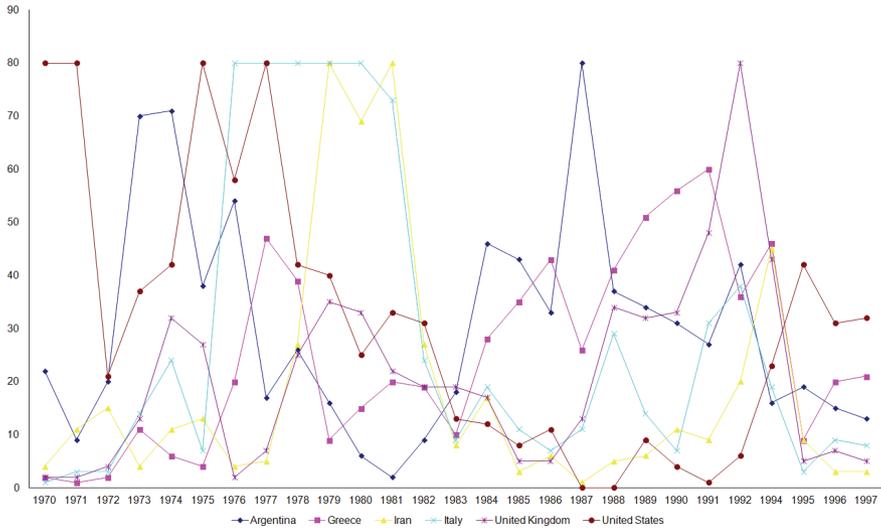
〈그림 6〉 테러사건이 발생한 국가들의 시간적 궤적 분석결과: 집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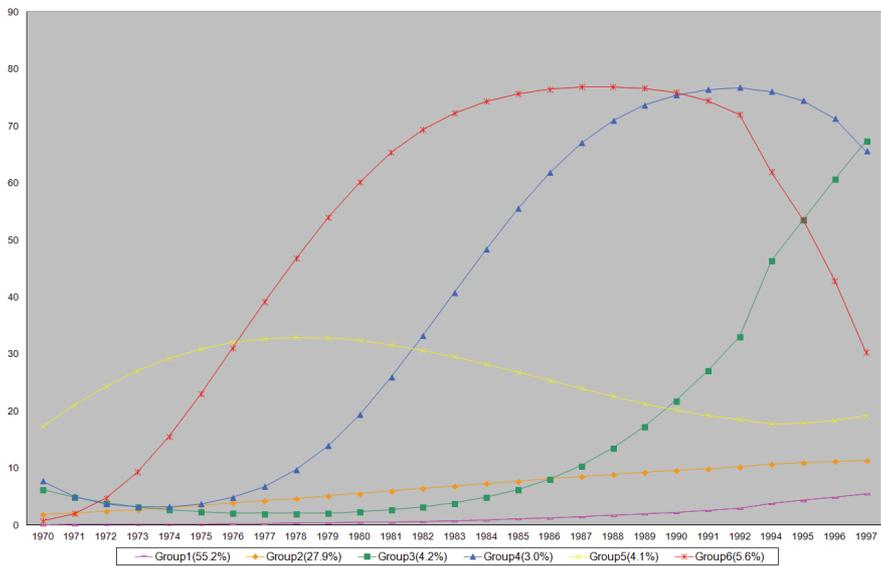
〈그림 7〉 테러사건이 발생한 국가들의 시간적 궤적 분석결과: 집단 4



〈그림 8〉 테러사건이 발생한 국가들의 시간적 궤적 분석결과: 집단 5



〈그림 9〉 테러사건이 발생한 국가들의 시간적 궤적 분석결과: 집단 6



〈그림 10〉 6집단들의 종합적 시간적 궤적 분석결과

마지막으로 <그림 10>의 분석결과는 각 6개의 집단들에 포함된 각 국가들의 총 테러사건발생을 종합하여 만든 평균치를 개별적 집단들의 예측치로 사용하여 각 집단별 예측 테러사건발생 시계열 추세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집단에는 약 56%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가장 많은 숫자의 국가들이 비슷한 패턴의 테러사건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집단 1에 포함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테러발생을 보였다.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았을 때 테러사건발생의 예측치는 매우 낮아 0에 가까운 발생수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사건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집단 1의 예측패턴은 1992년에 3건의 평균치로 가장 높은 최고점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의 집단 2의 시계열 추세의 예측치 역시 집단 1의 예측치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의 테러사건의 발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집단 2의 추세의 경우는 앞선 집단 1의 발생이 0에 가까운 것보다는 더 높은 평균발생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집단 2에 포함된 국가들은 GTD 데이터에 포함된 국가들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어서 집단 1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수의 국가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세 번째의 집단 3은 전체 국가들 중 약 4.2%의 국가들만이 포함되어있는데 이 집단 3의 테러사건의 평균예측치는 급작스런 상승과 하락곡선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집단 3의 경우 집단 1과 2와 같이 완만한 곡선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평균 8건의 테러사건에서 1995년의 피크에서는 연평균 69건의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드라마틱하게 급증하는 테러사건의 증가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테러발생의 빈도에 있어서는 집단 1과 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약 3%의 국가가 포함된 집단 4의 예측치는 1970년대 후반까지 낮은 연평균테러사건발생을 보이다가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80건의 테러사건의 발생의 피크까지 완만한 증가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집단 1, 2, 그리고 3과 비교하여 데이터가 수집된 28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상당히 높은 빈도의 평균 테러사건의 발생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 5의 예측치 역시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 평균예측치는 1970년대 초반부터 연평균 18건의 테러사건의 발생빈도를 보이며 앞서 소개된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테러사건발생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추세선의 경우 전체

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보이고 있지만 그 완만한 곡선 내에서 평균테러사건발생빈도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6의 예측치는 상당히 높은 평균테러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집단 4의 예측치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집단 4와 집단 6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테러사건의 발생추세선의 증가와 감소의 시간의 차이이다. 집단 6의 증가는 1970년대 초에 시작되어 1980년대의 긴 기간 동안 연평균 약 70건의 테러사건의 발생의 피크에 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급진적으로 테러사건이 급락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집단 4의 추세선의 패턴은 1970년대 말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완만히 감소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 6에는 GTD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전체 국가들 중 약 6%의 국가들이 포함되어있다.

V. 결론 및 논의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예방 및 대응정책 및 활동에 대한 논의는 범죄학과 관련된 주제로 현재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은 시간이 갈수록 특정 국가와 지역의 관심대상에서 벗어나 전 인류적인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현재 당장에 당면한 특정 집단에 의한 테러의 위협을 대면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의 국가 간 또는 집단들에 의한 자국영토와 자국민들에 대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활발한 국제적 통상업무에 관련되어있는 자국의 어선, 사업기반,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역시 테러사건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들에 대한 예측을 위해 자국 스스로 구축하는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언급하는 논문들은 그간 소수이지만 발간이 되어왔지만, 그 방향성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윤민우·김은영, 2012a; 2012b).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대테러정책의 일환으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주도아래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START 센터의 GTD의 구축의 시작과 발전 그

리고 GTD 데이터의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 소개된 GTD는 지속적으로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이 국내 및 국외에 있는 자국의 시설과 자국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테러의 위협을 예측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장기적인 학문융합프로젝트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구축은 현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상태로 테러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GTD 사업을 통해서 단기간 및 긴 기간의 테러의 발생가능성의 예측 및 테러의 발생과 현황들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구축 및 실무에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포석으로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현재 테러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및 학계의 관심방향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소개하고 있는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가 미국의 사례에 국한되어 있는 점과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계테러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GTD) 과정의 사례가 장차 국내 관련분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방향과 당위성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안내서로서의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정부부분과 다양한 학문영역간의 성공적인 학문융합적결과를 가져온 우수한 사례인 만큼, 국내에서도 범죄학과 정부부처간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분야의 융합적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국내의 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구축과 학문적 발전에 공헌하는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두현, 안광호 (2010),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안전대책”,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2호: 37-64.
- 박준석. (2008), “테러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7호: 157-172.
- 이완희, 윤민우, 김은영. (2013), “인터넷 시대의 정보활동: OSNIT의 이해와 적용사례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제 34호: 259-278.
- 윤민우, 김은영. (2012a), “전쟁양식의 진화로서의 21세기 국제테러리즘과 초국가범죄조직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테러학회보」, 제5권 제1호: 51-93.
- 윤민우, 김은영. (2012b), “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안보”,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1호: 157-183.
- 정육상. (2010), “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2호: 113~144.

2. 국외문헌

- Horgan, J. (2005), *The Psychology of Terrorism*, London: Routledge.
- McCaughey, C. (2003), "Psychological Issues in Understanding Terrorism and the Response to Terrorism," in C. Stout(ed.), *The Psychology of Terrorism*, Westport, CT: Praeger.
- LaFree, G., & Dugan, L. (2004), "How Does Studying Terrorism Compare to Studying Crime?" in M. DeFlem(ed.), Pp. 53-54.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Crimin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Elsevier.
- LaFree, G. & Duga, L. (2007), "Introducing the Global Terrorism Database",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19(2), 181-204.

3. 웹페이지

- 미국 메릴랜드대학(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의 the 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 and Responses to Terrorism(START)Center (이하 START) 센터 홈페이지
<http://www.start.umd.edu/>

4. 참여관찰(Field Research)

김은영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START 센터에서 Open Source Intelligence에 기초한 GTD 세계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1년간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의 PGIS 데이터를 기반으로 START 센터의 GTD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프로젝트로서 NIJ의 연구편드를 시작으로 DHS의 연구편드의 지원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다. 현재 GTD는 미국의 가장 주요한 데이터베이스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 GTD를 사용하여 전미 주요 대학의 석학들과 연계하여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현존하는 테러위협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학문적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학문적 컨소시엄 (consorsium)을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 학문적 컨소시엄에 포함된 학문적 영역은 정치학, 범죄학, 지역학, 인류학, 그리고 국제관계학 등의 다양한 영역의 학문이 융합되어 다양한 지식적 진보와 실무적 공헌을 이루어가고 있다.

【Abstract】

**Introducing Best Model of Global Terrorism
Database: The Case of START Center in the
U.S.**

**Kim, Eun-Young
Park, Sun-Young**

Collecting international terrorism database is a challenging task not only for criminal justice personnel but also for criminologists in comparison to the case of common types of crime database. Yet,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s and efforts in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terrorist events data base in the world. This current study has a goal to introduce an example world terrorism database case developed by START center in the United States. The START center developed the Global Terrorism Database (GTD) on the basis of by the Pinkerton Global Intelligence Service data (PGIS) originally collected by the Pinkerton. Furthermore, The START expended the GTD by collecting data from open source terrorist event data via internet and other resources. In this study, specifically, it describes the development and the nature of the GTD in general and the data collection efforts made by the STATA until today. Finally, this study provides a sketchy of the nature of the GTD data by showing th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es and time-series analyses result illustrating distribution of the world terrorism events. The limitation, policy implications and contribution of this study discussed in this paper.

Key words : the START center, GTD, Terrorism Data Base, Terrorism